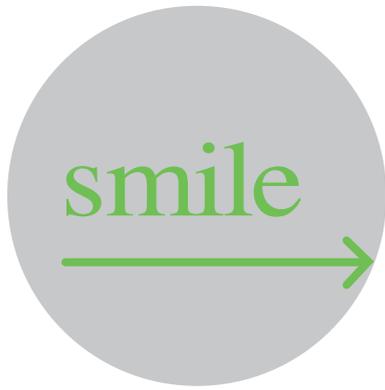


# MIRZINE

2015 Vol. 36 \_ 봄호

미르진은 미르를 찾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웃음, 꽃피다



## Contents

04 Intro \_기적을 선물하는 힘, 미소

### Message

06 Theme Column \_웃어야 복이 오지!

08 감사합니다 \_미르의 미소꽃이 피었습니다

10 Interview \_진주미르치과 조현규 대표원장

16 웃음백과사전 \_웃음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 Into 'smile'

22 웃음예찬 \_우리 모두 웃어보아요

26 괜찮아요? \_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 Review

28 미르의 우리 문화재 보존·복원 캠페인 \_  
국외소재문화재, 우리가 먼저 사랑합니다

30 바람 따라 길 따라 \_나도 꽃, 당신도 꽃

32 일상의 발견 \_당신은 호감형인가요?

### Zoom-in

34 미르뉴스

# MIRZINE

2015 Vol. 36 \_ 봄호

통권 제36호  
발행인 류경호  
발행일 2015년 3월  
발행처 (주)미르네트워크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 149-132



66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아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 피천득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 중에서

99

# 기적을 선물하는 힘, 미소

그가 다가왔을 때, 무심결에 눈이 마주쳤다. 바로 그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어색함을 피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난 그 상황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속에, 우리들 두 인간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물론 나는 그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 주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가 단순히 한 명의 간수가 아니라 살아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새로운 차원이 깃들여 있었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소?”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나의 가족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역시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다. 내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내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걸 지켜볼 수 없을까봐 두렵고 슬펐다. 난 그것을 간수에게 고백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나를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그는 마을 밖까지 나를 안내했고, 마을 끝에 이르러 나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어린왕자』의 저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는 소설가이자 비행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는 스페인 내란에 참여했다가 포로수용소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단편소설이 바로 앞의 글, 「미소」입니다.  
만약, 당시에 생텍쥐페리가 미소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사랑스러운 『어린왕자』를 영원히 만날 수 없었겠지요.

미소 지으세요.

어쩌면 ‘미소’는 기적을 선물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 웃어야 복이 오지!



글 \_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향에서는 참 많이 웃었는데  
일본으로 오니까 웃을 일이 없더군.  
웃으면 가난한 조센징이 웃는다며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결심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되자고, 가장 많이 웃기  
위해서 성공하자고.”

## ➤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위의 글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천황 다음으로 역도산’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일본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영웅이었던 역도산. 세계적인 프로레슬러였던 그가 죽기 일주일 전 제자 김일에게 털어놓은 독백이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한다.

웃음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의식이다. 비교하다 보니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고 웃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인생을 80평생 산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통계 수치가 현주소를 알려준다. 잠자는 데 26년, 일하는 데 23년, 들락날락 화장실 가는 데 3년 6개월, 번비 환자 4년, TV 보는 데 10년, 걱정 근심하는 데 6년 7개월...

그렇다면 웃고 즐기는 데는 몇 년? 하루에 5분 웃는다고 계산해도 고작 101일뿐이다. 턱도 없이 부족한 수치다. 억지로만 웃어도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말이다.

## ➤ 웃음은 왜 필요할까?

아이들은 하루에도 300~500번 웃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보다 건강하다.

첫째로 많이 웃게 되면 일단 우리 몸의 면역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질병에 웃음이 특효약인 이유는 한 번 웃는 것만으로 3~4배의 산소를 더 마시기 때문이다. 피가 맑아지는 것이다. 일본 의학박사에 의하면 16ml의 산소를 한 숨에 마신다면 웃고 난 뒤에는 68ml를 마신다. 이때 몸속의 독소가 배출되고 혈관이 깨끗해짐으로써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크게 길게 배와 온몸으로 웃고 나면 온몸이 더워진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이 따듯해져 면역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웃음은 뇌를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좋게 한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에너지 분산이 일어난다. 일이나 공부의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한 번만 웃어줘도 뇌파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인도학교에서는 뇌 활성화를 위해 아침부터 웃음체조를 한 후 수업을 한다.

셋째로 웃음은 무엇보다 관계를 좋게 한다. LA폭동이 일어났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연구를 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웃지 않고 있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표정은 심리적인 언어다. 반면 활짝 웃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80cm 가까이 가도 편안함을 느낀다. 어디서 본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성실해 보이는 심리적인 언어인 것이다.

## ➤ 그렇다면 어떻게 웃어야 할까?

미국 볼메리얼 병원에서 이런 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하루 15초만 웃어라 이틀을 더 산다.”  
 프랑스 문필가 알랭도 말한다.  
 “웃는 얼굴은 어떤 화려한 의상보다도 훨씬 인상적이다. 웃음은 최고의 화장술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웃어야 할까?

### NOTE 1 첫째 크게 웃어라

크게 웃으면 명치끝이 자극되고 겁을 상실하는 자신감이 올라온다. 그래서 웃음은 옛날 전쟁터에서 장군들이 사용했던 무기였다. 적장을 마주대하고 있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라온다. 내가 이기면 상대가 죽지만 상대가 이기면 내가 죽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깨고 상대의 기를 꺾기 위해 사용한 것이 큰 웃음이었다.

“하 하하 하하하하”

한 번 웃고 나면 “그까짓 것” 사기가 진작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인생도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웃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 NOTE 2 둘째 길게 웃어라

우리 뇌는 실상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억지로라도 15초 웃으면 진짜 웃는 것으로 착각해 그에 맞는 엔케팔린 통증 완화호르몬, 도파민 쾌락호르몬, 옥시토신, 세라토닌 등 만족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날숨을 길게 웃다보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신체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특히 최불암 웃음법 “파~아” 한 번 웃어봐라. 명치인 태양신경총이라는 제2의 심장이 강화될 것이다.

### NOTE 3 셋째 배와 온몸으로 웃어라

배와 온몸으로 웃을 때 650가지 근육 중에 230가지의 근육이 자극된다. 그래서 웃음은 다이어트에 좋고 오장육부를 좋게 하는 전신운동인 것이다.

이처럼 웃음은 신체적인 효과뿐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탁월한 도구인 것이다.

웃을 일이 생겨 웃는다면 웃을 날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웃음을 선택하고 웃음을 운동 삼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운 좋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필자처럼...

# 미르의 미소꽃이 피었습니다

따뜻한 그녀들의 미소로  
미르는 언제나 봄입니다.



친절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행복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미르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미르치과네트워크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미소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소꽃을 피우는  
미르인들이 있어, 미르는 언제나 봄입니다.





창원미르  
박미애  
상담부장

창원미르에서 단연 돋보이는 미소직원, 박미애 상담부장은 고객분들에게 더 나은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상무미르  
강애란  
코디네이터  
팀장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를 응대하는 강애란 코디네이터팀장은 친절한 미소 덕분에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텁습니다.



진주미르  
김일화  
치과위생사

보철 임플란트과 2년차인 김일화 치과위생사는 진주미르에서 한 달에 한 번 체크하는 '미소상'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분입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임하니 고객분들의 칭찬도 끊이지 않습니다.



목포미르  
이슬기  
치과위생사

소아치과 3년차인 이슬기 치과위생사는 항상 미소 띤 얼굴과 상냥한 목소리로 목포미르의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 환자와의 소통, 신뢰로 이어지다

진주미르치과 대표원장  
조현규

미르치과병원



어느 봄날, 보석 같은 풍류도시 진주를 찾았다. 빼어난 자연미와 산해진미로 유명한 진주는 예부터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이다. 지금도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풍류도시라 할 수 있겠다. 따사로운 진주의 봄햇살을 맞으며, 진주시 진주대로에 위치한 진주미르치과병원을 찾았다. 봄꽃처럼 해사한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는 진주미르인들. 그들의 친절함 미소와 포근한 실내 분위기는 치과에 들어설 때의 긴장감을 금세 사라지게 해주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조현규 대표원장 역시 부드러운 미소가 눈에 띄는 사람이다. 미소 띤 얼굴로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치과의사, 세심한 손길과 배려가 인상적인 조현규 대표원장을 만났다.

MIR DENTAL HOSPITAL

## ◀ 직원들이 먼저 행복해야죠

2008년도에 개원한 진주미르치과병원은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신뢰를 받는 치과병원이 되자’라는 모토 아래, 더 나은 진료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지역 내에서 인정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 또한 고객을 위한 ‘진료’에 충실한

결과이다. 진주미르치과병원은 다섯 명의 공동원장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진주미르치과병원은 공동원장들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대표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현규 원장은 지난해 제5대 대표원장으로 취임했다. 대표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적인 절차와 대외활동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현규 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만큼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고객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직원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교육을 준비 중이라는 조현규 대표원장. 직원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자랑하는 그가 대표원장으로서 세운 목표는 무엇일까.

“앞서 병원을 이끌어주신 대표원장님들 덕분에 진주미르치과병원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주미르치과병원이 닦아온 길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조현규 대표원장은 기본의 중요함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조현규 대표원장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내실을 다져나갈 진주미르치과병원을 응원해본다.



## ▶ 첨단진료시스템으로 고객만족을 이끕니다

진주미르치과병원은 치과의사 9명, 치과위생사 51명, 치과기공사 6명 등 7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임플란트과, 임플란트 보철과, 치주 임플란트과, 보철 임플란트과, 구강내과, 치아 교정과 총 6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플란트 분야에서는 특히 강점을 보인다.

“치과진료는 임플란트 전과 후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외과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시술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진주미르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CT촬영을 통한 3차원 입체영상 분석으로 치아 길이뿐만 아니라 턱뼈 및 신경 구조물 등 해부학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술의 정확성은 물론, 고객만족을 위한 진료시스템을 추구하는 진주미르치과병원은 큰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디지털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다. 잠든 사이에 치료가 끝나는 수면마취 임플란트부터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치주질환과 신경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물방울레이저까지, 이러한 첨단 진료시스템은 고객들이 치과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진주미르치과병원은 모든 의료기구 및 장비에 완벽한 멸균 소독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르치과네트워크의 체계화된 감염방지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이지요. 감염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병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의 만족이 최우선이라 말하는 조현규 대표원장. 진주미르치과병원의 고객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 ▶ 신뢰를 위해서는 '소통'이 먼저지요

조현규 대표원장이 치과의료 진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6년에 접어들었다.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조현규 대표원장은 환자들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이런 노력으로 고객들과 마음을 나누고 진료를 잘 마무리했을 때는

더욱 마음이 뿌듯하다고.

“환자 중에 인도 분이 계셨어요. 한국 항공회사에서 엔지니어 파트를 맡으신 분이세요. 우리 병원에 와서 발치를 하고 신경치료를 받으셨죠. 환자 분이 외국 분이시니까 저는 진료하면서 특별히 환자 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려 노력했어요. 다행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그분이 한국에 잠시 들른 아내 분을 모시고 우리 치과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인 분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요.”

이국땅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 '소통'을 위해 노력한 조현규 대표원장의 진심이 고객의 마음을 열어주었으리라. 이렇듯 진심을 담은 소통과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는



물방울레이저



B클레스\_멸균소독기





진주미르아트홀



진주미르치과병원. 재방문하는 고객들과 인근 지역인 사천시, 남해, 산청, 함양, 합천군 등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는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선 당장 눈앞의 치료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조현규 대표원장과 진주미르치과병원, 미르아트홀 역시 진주미르치과병원이 가진 소통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에 문화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병원 내에 마련한 미르아트홀에서는 지역작가나 동호회 회원들의 사진전, 작품전시회 등 소규모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관이나 홍보물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인 공헌에도 힘쓰고 있는 진주미르치과병원의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병원과 예술, 지역민들을 한데 잇는 소통의 기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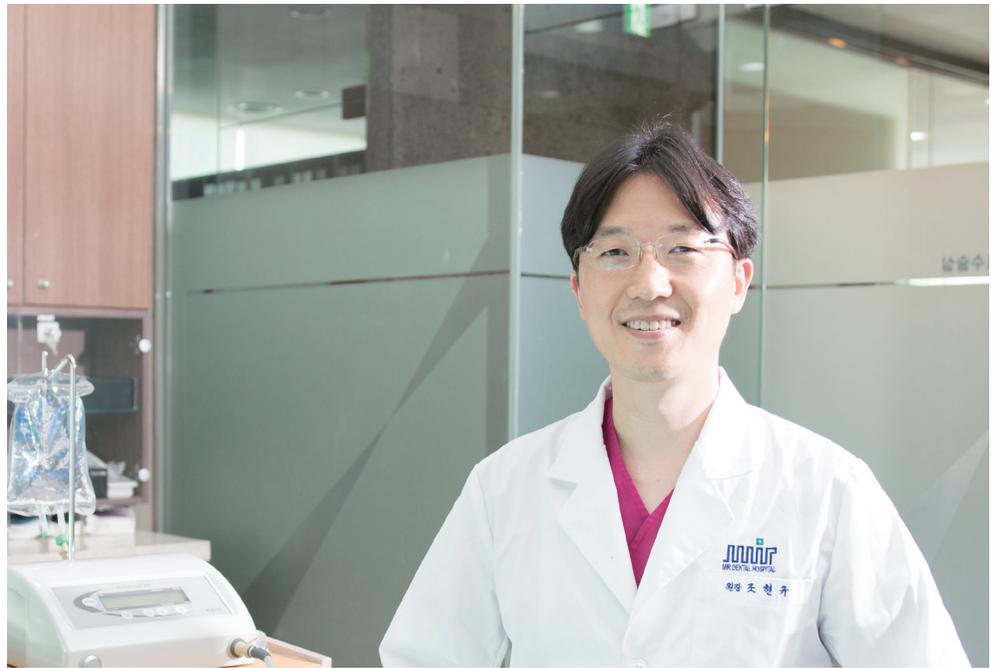


66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는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선 당장 눈앞의 치료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99





MIR Dental hospital Interview

###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 조현규 대표원장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라고 답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해질 뿐이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다보면 고마운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작은 일에도

웃음꽃이 피니다.”

가족들과 직원들, 환자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조현규 대표원장은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한다. 최근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된 것도 감사하는 마음의 연장선상이라고, 스스로가 건강해야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진정한 프로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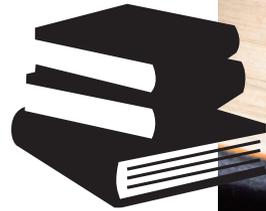
이렇듯 조현규 대표원장에게 ‘감사’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더 나아가 철저한 자기 관리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 미르가족에게 한마디

“병원 분야의 사람들은 아픈 환자 분들에게 미소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적지만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면서 진주미르치과병원을 찾는 분들이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르 가족 분들을 비롯해 우리 미르를 찾는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 웃음 백과 사전



〈참고자료〉

폴 에크먼 \_ 『얼굴의 심리학』 (바다출판사)

신영배 \_ 『첫』 (초암네트웍스)

이윤석 \_ 『웃음의 과학』 (사이언스북스)



"Oleg Golovnev /  
Shutterstock"

## 그림 :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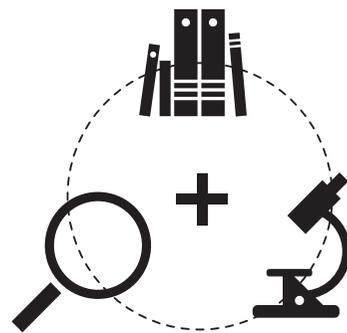
‘미소’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이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서도 비평가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어왔다. 많은 비평가들이 미소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의 생각을 해석해내진 못했다. 그 미소를 분석하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린시절을 돌아본 사람은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린시절, 계모 도나 알비에라와 할머니 모나 루시아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다.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다빈치. 그의 기억에 생모인 카테리나는 신비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다빈치는 피렌체 여인 「모나리자」를 통해,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게 되고, 다시 그 미소에 사로잡히게 된다. 다빈치의 어린시절을 토대로 프로이트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원초적 나르시시즘적 미소라 칭한다.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웃음을 작품으로 승화하여 그곳에서 모성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다빈치는 피렌체 여인 「모나리자」를 통해,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게 되고, 다시 그 미소에 사로잡히게 된다.

## 뒤센의 미소 : Duchenne smile

프랑스의 신경학자 뒤센 드 블로뉴는 진정으로 기분 좋은 웃음과 그렇지 않은 웃음이 어떻게 다른지 발견했다. 그는 얼굴의 여러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한 뒤 근육이 수축된 결과를 사진으로 찍음으로써 각각의 얼굴 근육이 사람의 표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연구했다. 뒤센은 먼저, 입가 근육을 자극하여 나온 웃음 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면서 실험자가 정말로 기뻐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실험자에게 농담을 던진 뒤 그의 반응을 사진으로 다시 찍었다. 두 사진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농담을 들었을 때 찍힌 사진에서 실험자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는데, 이유인즉슨 눈을 둘러싼 근육이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진짜 미소’란 입꼬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 주위의 근육도 같이 움직이면서 웃는 것이란 걸 뒤센의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진짜 미소’를 ‘뒤센 미소’라고도 부르고 있다.





## 문화 : culture

웃음은 공용어와도 같은 기능을 한다. 하지만 웃음 역시, 문화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웃음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비즈니스 차원으로 만났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명료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직 체면을 차리는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잘 모른다거나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 그냥 웃으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웃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인 베트남 사람이 웃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상대방이 재미 있어서 웃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미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잘 웃는 게 특징인 베트남 사람들과 다르게, 러시아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 문화가 있다. 러시아인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 상점의 점원들이 손님에게 웃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점원은 손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손님과 안면을 트고 나면 점원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 있다. 러시아인과의 대화에서 미소는 친절의 표현이 아니다. 입가를 떠나지 않은 예의바른 미소를 러시아에서는 '접대용 미소'라고 부른다. 그런 미소를 짓는 사람은 음흉하고, 진심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백제의 미소 : Smile of Baekje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마애여래삼존상은 얼굴 가득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백제후기의 작품으로 백제 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마애여래삼존상. 큰 암벽의 중앙에 석가여래입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륵반가사유상, 왼쪽에는 제화갈라보살입상이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다. 특히 석가여래입상의 보주형 광배와 미간의 백호공, 초승달 같은 눈썹, 미소짓는 입술은 매우 친근감을 준다. 마애여래삼존상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각기 달라지며 빛과의 조화에 의해 진가를 발휘한다.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문화의 근거가 되는 마애여래삼존상은 오랜 세월 수풀에 파묻혀 잠들어 있다가, 1958년에서야 발견돼 국보 84호로 지정되었다.

| 공공누리에 따라 문화재청의 공공저작물 이용

## 人 신라의 미소

: Smile of Silla



평화로운 표정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니고 있는 얼굴무늬수막새. 고대 미술에서 사람 얼굴을 표현하는 것은 주술적인 목적이나 나쁜 것을 물리쳐달라는 의미이다. 미소를 짓고 있는 신라의 얼굴무늬수막새는 험상궂거나 무서운 표정 대신 웃음으로서 나쁜 기운을 달래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을 것이라 예상된다. 얼굴무늬수막새는 원래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일본인 의사인 다나카 도시노부 씨가 경주 고물상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갔다. 하지만 경주박물관의 노력 끝에 1972년 10월 다나카 씨가 직접 박물관에 찾아와 기증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人 전염

: be contagious



웃음이란 근본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안전하고 즐겁다는 신호이므로 직접적 농담이 아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웃음을 통해 흥을 복돋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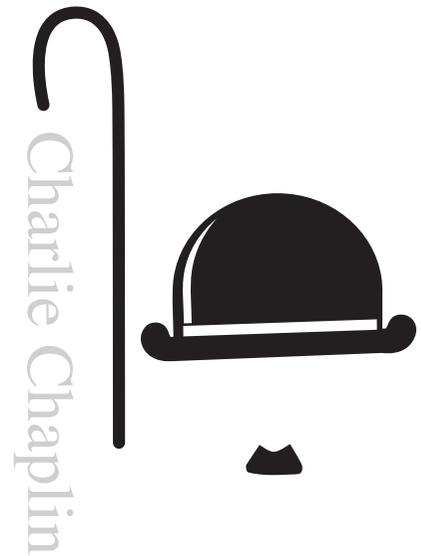


웃음의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끈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느낌, 우리는 현재 즐겁고 기분 좋은 상태라는 느낌을 웃음은 갖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된다. 우리는 가끔, 왜 웃긴 건지 알 수 없는 일상적인 말들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짓기도 한다. 로버트 프로바인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에 웃는지를 관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에 보자”, “뭐라고?”였다. 이처럼 전혀 재밌지 않은 말이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 또한 웃음이 사회적 신호라는 사실과 관련 있다. 웃음이란 근본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안전하고 즐겁다는 신호이므로 직접적 농담이 아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웃음을 통해 흥을 복돋을 수 있다. 이미 19세기의 연극 제작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식해 연극무대에서 활용했다. 웃음의 전염성을 이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웃음관객을 고용한 것이다. 웃음관객이 웃음을 유도함으로써 사람들은 웃을 시기를 알아챌 수 있었고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웃으며 더욱 즐거워할 수 있었다.



## 웃 찰리채플린 : Charlie Chaplin

웃음의 제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찰리채플린을 떠올릴 것이다. 영화인으로서 화려했던 삶을 살았던 것과는 달리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곱 살의 찰리채플린은 보육원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의 부모가 그를 길러줄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늘 슬퍼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웃음을 주는 아이였다. 싸늘한 보육원 선생님 때문에 보육원의 아이들이 의기소침해 있으면, 양상추 이파리를 코밑에 붙이고 선생님의 입모양을 흉내내며 아이들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그때부터였을까. 그가 배우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건, 열 살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온 채플린은 극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는 곧 연극을 그만두었다. 그는 신문팔이, 이발사 조수, 병원의 심부름꾼, 유리공장과 인쇄소의 노동자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열네 살이 되던 해, 찰리채플린은 다시 극단을 찾아가 작은 배역을 맡았다. 열아홉 살이 되던 해에는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배우로 성장했다. 이는 곧 미국 영화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졌고, '생활비 벌기'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다. 영화 속 인물에게 개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채플린. 그는 고민 끝에, 험령한 바지에 커다란 구두를 신고 작은 모자를 썼다. 짧은 콧수염을 붙이고, 지팡이도 들었다. 웃음의 제왕 '찰리채플린'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이후, 그는 수십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감독으로도 활동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고, 생을 마치는 날까지 영화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백발이 된 채플린은 1972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시상식장을 떠나면서도 그는 "웃어요"라고 흥얼거렸다. 어쩌면 가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찰리채플린은 웃음의 제왕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360b / Shutterstock"

## ㅋ 코드

: code



시대별로 달라져온 웃음코드는 어떤 '유행어'가 인기를 끌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먼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사회비판의식이 내포된 풍자유머가 유행이었다. 당시 '유머일번지'라는 개그프로그램은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잘 될 턱이 있나', '팔랑팔랑', '밥 먹고 합시다', '잘 돼야할 텐데'와 같은 유행어를 남겼다. 특히 '유머 일번지' 코너 중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권력에 아부하는 인간상들을 언어로 풍자하고 민주화 요구가 거셴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부자되세요"라는 광고멘트가 새해인사로 유행을 했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겨내고자 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부자되세요"를 유행어로 만든 것이다. 2000년대에는 '김기사 운전해~'라는 유행어가 큰 인기를 끌었다. 겉보기에는 고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상류층을 향한 조롱 섞인 유머는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몇 년 전에는 드라마 남자주인공의 '극뽕'이라는 대사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는 힐링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무표정과 상반되는 재미있는 발음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웃음을 터트린다. 유머의 핵심은 결국 '웃음'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막간의 안식처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피에는 서커스나 희극에 등장하는 익살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익살' 외에 피에로의 다른 표정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피에로에게서 미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피에로 같은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를 상징하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식욕이 감퇴하고, 만성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 같은 증상은 인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사는 연예인이나 고객을 많이 대하는 세일즈맨, 경쟁의 성과에 내몰린 직장인들 등 이른바 감정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웃음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웃음을 강요받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은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 ㅠ 피에로의 눈물

: pierrot tears



# 우리 모두 웃어보아요

흔히들 웃음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자리 잡은 웃음! 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웃음이 가진 힘, 그것이 궁금합니다.



## Health 하하호호, 웃으면 건강해져요



### 통증이 완화된다

1964년, 잘나가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노먼 커즌스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 당시, 그의 병이 치유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노먼 커즌스는 최대한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이 질병을 치유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락프로그램이나 코믹영화를 시청하면서 많이 웃었고, 많이 웃은 날에는 통증 없이 편히 잘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은 노먼 커즌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질병치유기를 의학 전문잡지에 실었고, 많은 이들이 그 글에 주목했다. 노먼 커즌스의 말대로 웃음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소아통증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니 젤처는 환자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때 진통제를 덜 찾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환자들이 웃을 때 자연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이었다.



### 면역력이 높아진다

웃음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해준다. 웃을 때,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수십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 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 분석해보면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killer cell)'가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빙그레 짓는 미소도 좋지만 '하하, 깔깔' 하고 크게 소리 내면서 웃을 때 암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면역 세포)의 능력이 더 향상된다는 걸 잊지 말자.



###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경우, 생리적으로 위험한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그렇게 되면,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되면서 신경도 예민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숙면이 어려워진다. 또한 식욕이 증가해 몸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 단백질의 과도한 분해로 인해 근육조직까지 손상되며 결국엔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웃음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당장의 웃음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는 카테콜아민의 분비가 증가되니 말이다.



### 다이어트가 저절로

웃음은 살빼기 효과가 있다. 웃으면 우리 몸을 이루는 근육과 뼈, 오장육부가 강약에 따라 흔들리며, 웃는 동안에는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되어 유산소 운동을 촉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한 번 웃을 때마다 35칼로리가 발산된다. 웃음의 효과를 30년 동안 연구한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에 따르면, 하루 3분간 유쾌하게 웃는 것은 10분간 노젓기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20초 동안 크게 소리 내서 웃는 것은 5분간 에어로빅을 한 효과를, 1분여 동안 박장대소를 하면 10분간 조깅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Management 활짝 웃으며, 경영도 FunFun하게



## 고객의 마음을 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판매연구소의 제이슨 박사가 연기자 150명을 동원하여 판매와 웃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실험을 했다. 각 50명씩 세 그룹을 나누어 웃음, 무표정, 인상을 짓게 하여 상품판매를 한 결과, 웃음팀은 목표량의 300~1000%를 판매했고, 무표정팀은 10~30%를, 인상을 찌푸린 팀은 전혀 팔지 못했다고 한다. 웃음이 고객의 마음을 연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맥도날드는 러시아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미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판매직원들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10분 이상씩 미소훈련을 시켰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판매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을 하게 됐다. 러시아 사람들은 무뚝뚝하기로 소문나 있었지만 판매직원들의 미소 띤 얼굴에 금세 감성이 흔들렸고, 그 결과 맥도날드는 러시아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 유머로 승부하다

저가항공사이지만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의 경제지 '포춘'이 정한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개 기업'으로 꼽힌다. 이는 창업자인 허브 캘러허의 '편 경영'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직원들은 유쾌하다. 특히, 출입국 담당사원은 유머감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들은 "양말에 가장 큰 구멍이 나 있는 분 손들어보세요", "열쇠고리에 가장 많은 열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운전면허 사진이 가장 못생기게 나온 사람은요?"라는 질문으로 기다림에 지친 고객들을 즐겁게 한다. 기내 방송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비행을 마친 승무원은 "오늘도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함께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혹은 당신의 돈을 사우스웨스트 항공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식의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이렇듯, 고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971년에 창립된 이래, 40여 년 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 특별한 파티를 열다

미국의 아메리카 항공은 레드아이라 이름 붙인 항공편에서 큰 적자를 보게 되었다. '마지막 비행기'라는 뜻이 담긴 '레드아이'라는 이름에서 고객들이 싸구려 티켓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아메리카 항공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레드아이'를 '심야 특별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승객들의 음악신청을 담당할 승무원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이는 승객들에게 지루한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아메리카 항공은 승객들에게 뮤직비디오와 샴페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심야 특별기편을 파티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심야 특별기편을 '재미있는 비행'이라고 광고했다. 그 결과, 사업은 70%나 성장했다.



## 기부도 축제처럼

'Red nose day'는 2년에 한 번, 3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영국의 '기부의 날'이다.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이전의 평범한 기부문화와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온 국민이 마치 축제처럼 이날을 즐기며 모금운동을 벌인다. 빨간 코를 구입하거나, 각자의 아이디어 상품인 빨간 코 모양의 쿠키와 네일아트, 장난감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셀프모금도 이루어진다. 남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즐기는 기부활동을 처음 시작한 곳은 영국의 코미디언이 만든 자선단체 '코믹 릴리프'이다. '코믹 릴리프'는 사람들의 기부를 늘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부활동 자체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Red nose day'를 만들었다. 모두가 즐기는 기부,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3년 red nose day에 하루 동안 모인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1,670억 원! 처음 행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4회의 금액을 합하면 무려 1조 원이 훌쩍 넘는다. 우스꽝스럽기만 했던 작은 장난감 코가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문 것이다.

### 〈참고자료〉

토마스 홀트베르트 \_ 『웃음의 힘』 (고즈윈)  
최승혜 \_ 『웃어라 사람』 (들녘)  
엄은용 \_ 〈놀면서 기부하는 빨간 코의 날〉  
(EBS NEWS)



#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글 \_ 김은아  
마음문학치료연구소 소장, 행복한그림동화책연구소 소장

## 앤드류 카네기 (1835~1919)

###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물려주는 게 최고 아니냐며 씩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 한숨이 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개탄한다고, 한숨 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런 이유로 낙담한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돈과 권력보다 더 귀한 유산인 밝은 성격을 물려주면 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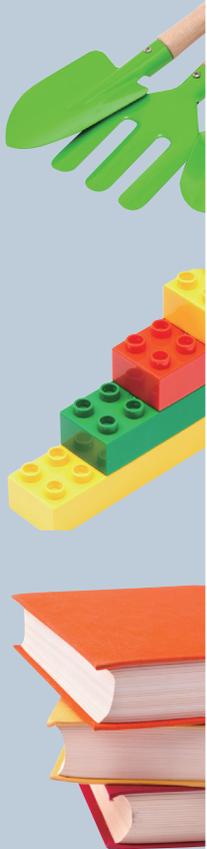
‘강철왕’이자 미국 최초의 근대 자본가로 교육과 사회사업에도 열정을 쏟았던 앤드류 카네기 (1835~1919)는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밝은 성격이 주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반면 어두운 성격을 가진 사람은 거리감을 주는 동시에 시니컬한 표정을 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조건인데도 밝은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의 인생을 즐겁고 발전적으로 꾸려나가는 반면,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는 불만과 불신, 자학 속에서 무척 힘들게 살아갑니다.

잘 웃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에 유리할 수밖에요. 그래서 밝은 성격은 일과 사랑, 우정을 성공으로

이끌어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밝은 성격을 물려주는 일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엄마의 모범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요.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처음에는 보람 있고 행복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50%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육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비관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빠·엄마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 스스로 밝은 성격을 가지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겠냐고 말이지요. “모두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점차 답답함을 호소하며 언젠가는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아이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랑 함께 노는 것이고, 아이를 위해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놀고 싶어서 놀이공원에 가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이의 견문을 넓혀주려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엄마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생각을 바꾸는 일이 내 아이의 성격을 밝게 만드는 출발입니다. 적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가 사라지면 그러한 노력들이 부모로서의 의무가 아닌 아빠·엄마의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즐겁게 사는 부모를 보면서 울상을 짓는 아이는 없겠지요.

봉사활동과 책모임으로 인연이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아름답다'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가끔 모임에 아이와 함께 오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들 부모와 아이들한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를 추켜세워 주며 온화한 말투로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 부모를 닮아있더군요.

둘째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에 쫓기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이들도 가족이 세운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잘못했을 때는 변명과 거짓말로 둘러댈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외롭게 밥 먹고 쓸쓸하게 놀지 않도록 부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공유하는 반면, 각자의 취미 생활을 인정하고 그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도 신선했습니다.

다섯째

남편이 아내의 일과 공부, 취미 생활, 봉사 활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아이들도 엄마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더군요. 어떤 집은 우리 엄마가 봉사 가는 날은 아빠랑 청소하고 우리끼리 밥 해먹는 날이라는 규칙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는 일, 엄마가 하는 일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닌데도 가족 모두가 지지한다는 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돈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몸소 실천하는 부모의 욕심 있는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무엇보다 저는 이들이 용기 있는 부모라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이 어쩌네 하는 개탄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이들과의 인연이 제게는 그 어떤 논문이나 이론서보다 귀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덧붙여 봅니다.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키우려면 좋은 이웃을 만들고, 내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 밝은 성격을 가진

## 아이로

## 키우기 위한 Tip

- 1 하루에 20~30분만이라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는 설거지, 빨래, 청소를 멈추어야 합니다. 눈을 맞추고 깔깔거리고 웃으며 온전히 함께 어울리세요.
- 2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마세요. 혹여나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면, "어른들도 가끔 싸울 때가 있는데 그건 아빠와 엄마가 생각에 차이가 나서이지 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라며 안심시켜 주세요.
- 3 부부가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면박을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상대를 폄하하는 말을 보고 자란 아이의 세계관, 타인관은 무척 부정적입니다.
- 4 "안 돼", "하지 마"라는 금지어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을 해보세요. 금지어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말썽쟁이로 여기게 만듭니다.
- 5 칭찬을 하되 상황에 맞게 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상황에 맞지 않거나 과한 칭찬은 고래를 새우로 만들고 아이의 자아상을 왜곡시킵니다.
- 6 자주 격려해주세요. 칭찬이 어떤 행위나 결과에 대한 언어적 보상이라면 격려는 과정을 독려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깐 무척 기특한데"라는 식의 격려는 아이를 밝게 합니다.

미르의 우리 문화재 보존·복원 캠페인  
국외소재문화재, 우리가 먼저 사랑합니다

# 우리 가치를 우리 곁에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문화재의 보존·복원을 위해 미르치과네트워크가 후원자로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르치과네트워크는 긴급하게 보존처리가 필요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12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장기 프로젝트(2015~2017년)를 시작한 바 있는데요. 장기 프로젝트의 첫 걸음으로 유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주제로 한 2015년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가 최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사업' 협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우리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100여 개의 국외박물관에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사업을 공고해 두었는데, 4월부터 지원서 심사를 거쳐 긴급히 보존·복원해야 할 문화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미르치과네트워크는 6월부터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의 보존·복원 처리 지원금을 기부하는 등 우리 문화재 안전관리지킴이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류경호 미르치과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루 빨리 보존처리를 받아야 하는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들의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복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요즘, 미르치과네트워크와 함께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에 근거해 2012년 7월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해외에 유출된 한국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활용·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기관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물론, 민간에 흩어져 있는 한국문화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현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 문화재가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될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온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관련 도서 발간 및 연계 강연회도 개최한다.

## MINI 인터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  
오수동

**Q** 미르치과네트워크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게 되나요?

**A**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올해부터 전세계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사업 지원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들 중 일부는 미르치과네트워크의 후원금을 통해 보존·복원 처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보존·복원처리 과정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정보들은 기획전시나 워크숍을 통해 현지 대중에게 소개되는 등 관련 활용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단과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긴밀히 추진해감으로써, 해외에 흩어진 한국문화재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Q** 미르인들과 미르치과네트워크를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국외소재 문화재'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외국의 여러 공공의 박물관이나 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는 문화재 환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한국문화재들은 현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예술의 특성과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홍보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들조차 인력, 시설, 예산 등의 한계로 꼼꼼한 수장고에서 먼지만 뒤집어쓴 채 보존·복원 처리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 일을 맡아왔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그것을 올해부터 이어받아 진력하고 있으나, 워낙 양이 방대하고 예산에 제약이 많아 어려움이 큼니다. 민간기업이나 국민들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열악한 상황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 나도 꽃, 당신도 꽃

대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에 마음은 어느새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설렘 가득한 봄날, 낭만을 더하는 건 누가 뭐래도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코끝을 맴도는 지금, 활짝 핀 봄꽃을 따라 떠나보세요, 그곳에선 당신도 봄꽃이 될 테니까요.

## #1

### 100리 길 벚꽃거리 진주 진양호

진주의 봄은 진양호에서 시작된다. 진양호는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귀곡동·대평면·내동면과 사천시 곤명면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이다. 주변 풍광이 좋아 이제는 진주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진양호 순환도로는 '100리 길 벚꽃거리'로 유명하다. 100리길에는 5,100여 그루의 벚꽃과 호수가 어우러져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100리 길 벚꽃거리'는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휴식처와 함께 마라톤 및 자전거 동호회 등의 행사 코스로 이용되면서 새봄의 풍취와 함께 웰빙시대에 걸맞은 레포츠를 위한 코스로도 자리 잡고 있다.

100리 길 외에, 진양호공원에서도 벚꽃을 즐길 수 있다. 경호강과 덕천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진양호공원의 주변에는 약 2,000 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봄이 되면 꽃들이 만개해 빛을 발한다. 벚꽃을 감상하며 진양호공원을 걷다보면 동물원, 어린이 놀이동산, 전망대를 지나게 된다. 전망대에 올라 마주하는 진양호의 일몰은 장관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365계단으로 이루어진 소원계단과 편백나무숲의 산책로는 심신을 달래기에 적당하다.

information

**벚꽃 개화시기** 3월 말 ~ 4월 초순경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문의** 055-749-2510

Blossom

#2

벚꽃명소의 향연  
진해군향제



군항도시에서 즐기는 벚꽃축제 '진해군향제'가 올해로 53회를 맞는다. 약 35만 그루의 벚꽃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는 진해시에는 벚꽃명소가 많다. 여좌천 1.5km의 꽃개울과 경화역의 800m 꽃철길에서 피는 아름다리 왕벚나무는 진해벚꽃의 절정이며, 안민고개의 십리벚꽃 길 또한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만끽할 수 있는 벚꽃명소이다. 장복산공원,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기지사령부, 제항산공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진해의 볼거리이다.

information

**기간** 2015년 4월 1일(수)~ 4월 10일(금)  
**위치** 중원로터리 및 진해 일대  
**문의** 055-225-3041

#3

튤립과 바다의 만남  
태안튤립축제



'꽃과 바다 그리고 빛'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태안튤립축제는 300품종 120만구의 튤립이 식재되어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튤립을 이중 식재하는 네덜란드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차를 두고 변하는 튤립의 색다른 모습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루피너스와 디지털리스, 백합 등 고급 품종과 각종 초화류, 유채꽃 등 다양한 봄의 향연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한다.

information

**기간** 2015년 4월 17일(금) ~ 5월 10일(일)  
**위치**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네이처월드  
**문의** 041-675-9200

#4

철쭉과 발맞추며  
황매산철쭉제



황매산은 소백산과 바라봉과 함께 철쭉 3대 명산으로, 만물의 형태를 갖춘 모산재의 기암괴석과 북서쪽 능선의 정상을 휘돌아 산 아래 황매평전 목장지대로 이어진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군락지이다. 장박리에서 975봉을 올라서면 정상까지 철쭉군락이 이어지는데, 시야가 시원스럽게 확 트여 철쭉물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정상 바로 아래에는 과거 목장을 조성했던 평원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황량한 겨울을 이겨낸 초목과 붉은 꽃의 조화를 감상하는 것 또한 철쭉 산행의 백미이다.

information

**기간** 2015년 5월 초순경(미정)  
**위치** 경상남도 함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황매산군립공원  
**문의** 055-930-4758

#5

오월의 장미 속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기차마을 1004 장미공원에서 '향기(Scent), 사랑(Love), 꿈(Dream)'을 주제로 열린다. 천만송이 세계명품장미의 향기를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 장미꽃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설로는 추억의 증기기관차, 드림랜드,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등이 있다.

information

**기간** 2015년 5월 22일(금) ~ 5월 31일(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문의** 061-360-8252

\* 축제의 경우, 꽃의 개화시기와 날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신은 호감형인가요?

## smile

### 웃는 얼굴이 먼저 보여요

캘리포니아대학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폴 에크먼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서로 마주보며 다가가게 하면서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게 하는 실험을 했다. 다른 표정들과 다르게, 웃는 얼굴은 90m나 떨어진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웃는 얼굴이 가진 힘은 크다. 시선을 사로잡고,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즐겁게 만든다. 무표정한 사람과 웃는 사람 중 어떤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싶겠는가. 당연히 웃는 사람이다. 물론, 계속 웃기만 한다고 해서 호감을 얻는 건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웃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초 이내의 웃음은 예절의 신호이지만 5초 이상의 웃음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어” 혹은 “그 사람은 너무 비호감이야”라고 말하곤 합니다.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들에게선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호감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호감을 얻는 행동’, 그에 대해 알아보니다.



## distance

### 첫 만남에서는 거리가 필요하죠

인간관계는 즉석식품처럼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친밀함이 싹트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순서를 건너뛰고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 양 행동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내보일 사람은 없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거나, 말을 놓거나, 비밀스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등의 행동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 〈참고도서〉

- 프랑크 나우만 \_
- 『호감의 법칙』(그책)
- 데일 카네기 \_
- 『카네기 인간관계론』(씨앗을 뿌리는 사람)
- 가도카와 요시히코 \_
- 『기업을 살리는 웃음의 기술』(두엔비컨텐츠)

## 3seconds

### 악수를 할 땐 3~4초만!

악수는 우호적인 의사 표시이다. 하지만 예의에 어긋나는 악수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산다. 미국의 학자 윌리엄 채플린은 악수에도 호감을 주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악수는 서열이 높은 사람이 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면 건방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가 악수를 청할 시에는 일어나서 받는 것이 예의이며, 여러 명과 인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아무와도 악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악수를 할 때에는, 손을 내밀어 짧고 힘 있게 3~4초만 흔들면 되는데, 그보다 길게 흔들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



## listen

### 귀 기울여주세요

대화를 잘 나눈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다. 아무리 말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다. 물론 얘기를 들어줄 때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로 보이고, 의자 뒤에 기대앉는 행동은 '지금 너무 지루해'라는 표현과 같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apologize

### 사과도 잘해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만들 뿐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당신이 사과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위로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신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진심이 담긴 대화는 당신을 다시금 호감형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 memory

### 이름을 기억하길 바래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백악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직원뿐만 아니라 짧게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기억했다. 그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충족시켜준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했던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인들에게 존경 받고 사랑 받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가슴속에 남아있다.



### Tip. 호감 가는 인상, 이렇게 해보세요!

**표정근육 스트레칭**은 얼굴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만들어줍니다.

- 눈** 눈을 크게 뜬 채 시선을 아래로 향한다. 다음엔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가며 움직인다. 눈동자를 천천히 좌우로 회전시킨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표정이 살아있는 눈매를 만들 수 있다.
- 눈썹** 눈썹을 이마 위로 올린다. 5초간 그대로 있다. 그리고 살그머니 원래대로 돌아온다. 5회 반복한 뒤에 '하나, 둘, 하나, 둘'하며 이 동작을 빠르게 하면서 눈썹의 상하운동을 한다. 이것을 10회 이상 반복한다.
- 입** 손바닥을 양 볼에 대고 입꼬리를 위로 부드럽게 끌어올린다. 얼굴의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이 동작을 반복한다. 소리를 내면서 하면 긴장을 푸는 효과가 있다. '위스키', '김치' 등 어미가 '이'나 '에'인 말을 골라서 해보자. 손으로 밀어 올리는 것을 30회 정도 한 후에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30회 입꼬리를 위로 올린다.
- 볼** 입안에 공기를 가득 들이마셔 볼을 부풀린다. 머금은 공기를 천천히 내뿜는다. 이것을 5회 반복한다. 들이마신 공기를 오른 쪽 볼로, 왼쪽 볼로 이동시키기를 10회 반복한다. 이는 볼의 처짐을 방지해준다.

# MIR News

미르는 의료 및 사회봉사, 미르갤러리, 미리아카데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르의 소식을 전합니다.



## 미르 Together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3월 17일, 미르치과네트워크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르치과네트워크는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존·복원을 위해 지원금을 기부기로 하였다. 타국에서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후원자로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뜻 깊게 여겨진다. 이번 협력사업을 밀거름 삼아 더 많은 기업과 국민이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미르 교육

### 2월 2일 \_ 브레인데이 (소아치과교육 1, 2 : Dr.김유정, Dr.홍영주)



### 3월 2일 \_ 브레인데이 (외부초청교육 : 배중호 전 아나운서 '행복한 생활의 비결')



### 3월 13일 ~ 3월 30일 \_ 예방치과교육

▶ 3월 매주 금요일 \_ 서비스교육  
(PNS 연구소 황선아 대표 'CS 마인드 및 미르치과 매뉴얼 분석법' 등)



부천  
미르

▶ 4월 둘째 · 셋째 금요일 \_ 치과 감염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한서대학교 배성숙 교수, 신성대학교 윤경옥 교수 '감염관리 일반' 등)



진주  
미르

▶ 1월 13일 \_ 신입직원 직장 내 예절교육



▶ 2월 3일 \_ 신입직원 전자차트 사용방법 교육

▶ 2월 10일 \_ 신입직원 방사선 교육

▶ 2월 28일 \_ 통영미르 Dr.장길웅 'Gothic arch tracing의 임상응용' 강의 및 임상응용

원장 및  
사원 활동

▶ 1월 21일 \_ Dr.정성국 TBC건강365 방송



대구  
미르



▶ 3월 11일 \_ 조세용 대표원장 목포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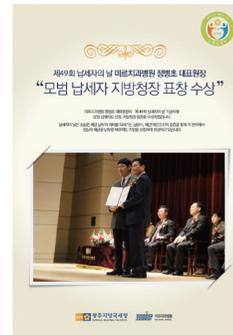


목포  
미르

▶ 3월 3일 \_ 정병초 대표원장 '모범 납세자' 지방청장 표창 수상



상무  
미르



▶ 1월 15일 \_ Dr.박재희 '덧니와 비염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닥터MBC 방송녹화



전주  
미르

▶ 2월 26일 \_ Dr.정희웅 '40·50대 남성들의 고민, 충치보다 심각한 잇몸질환'이라는 주제로 닥터MBC 방송녹화



▶ 3월 26일 \_ Dr.정희웅  
‘임플란트 장기적 예후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전북치과임플란트협의회 강의

진주  
미르

- ▶ 1월 2일 \_ 조현규 대표원장 업무 시작
- ▶ 2월 2 ~ 3일 \_ Dr.노창세 중국 교정학회 참석
- ▶ 3월 2일 \_ Dr.노창세, Dr.윤순옥 한국 치과교정학회 참석
- ▶ 3월 3일 ~ 4일 \_ Dr.허준용 ‘치과 임플란트 개론 및 정의와 임플란트를 하는 목적’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의
- ▶ 3월 10일 \_ Dr.권경민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강의
- ▶ 3월 10일 ~ 11일 \_ Dr.허준용 ‘치과 임플란트의 종류 및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의
- ▶ 3월 17일 ~ 18일 \_ Dr.황준환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해부학 및 생물학’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의
- ▶ 3월 23일 ~ 28일 \_ Dr.윤순옥 트위드학회 참석
- ▶ 3월 24일 \_ Dr.노창세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강의
- ▶ 3월 24일 ~ 25일 \_ Dr.허준용 ‘환자 상담, 진단 및 평가’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의

원내  
주요활동

▶ 2월 10일 \_ 캠프워크사령관 투어



▶ 3월 16일 \_ 합동소방훈련



▶ 2월 12일 \_ 목포과학대학교 협약식



▶ 3월 3일, 8일, 19일 \_ 자체 안전검사 (가스 안전, 전기 안전, 소방 안전)

▶ 3월 19일 \_ ‘아홉가지약속치과’ 벤치마킹 방문 1차  
(참여자 : Dr.조세용, Dr.박진호, Dr.김희곤, Dr.김영운, Dr.양성우, 박영심 부장, 안형찬 부장, 서희선 실장, 이슬, 조다영 팀장, 오경민, 정고은, 이설민, 박수연)

▶ 3월 26일 \_ ‘아홉가지약속치과’ 벤치마킹 방문 2차  
(참여자 : Dr.강문정, Dr.유민기, 한희경 실장, 조지혜 실장, 박병록 과장)

▶ 2월 7일 \_ ‘여수모아치과’ 교정과에서 견학 목적으로 방문



진주  
미르

▶ 3월 3일 ~ 5일 \_ 일본치과의사 방문



▶ 3월 9일, 10일, 12일 \_ 진료실 수관 검사 및 청소



▶ 1월 19일 \_ 진주보건대학교 3학년 치위생과 임상실습

▶ 2월 3일 \_ MBC경남 시민교양강좌 입장권 배부처 등록

제381회  
**MBC**  
시민교양강좌

제382회  
**MBC**  
시민교양강좌

- 강사: 김 성 주 / 아름다운 길 연구가
- 주제: <여행, 떠날 수 없는 자유>
- 3월 연속공연
- 제1강 (여행이란 무엇인가)
- 떠나기 전 준비, 준비와 할 여행의 형태
- 일시: 2015. 2. 24(화) 저녁7시
- 장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1층 아트홀
- 주최: MBC 경남
- 후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강사: 김 성 주 / 아름다운 길 연구가
- 주제: <여행, 떠날 수 없는 자유>
- 3월 연속공연
- 제2강 (떠나도 떠나야 할 것인가)
- 각 지역의 문화는 여행자의 성장기준
- 일시: 2015. 3. 25(목) 저녁7시
- 장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1층 아트홀
- 주최: MBC 경남
- 후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후원  
& 봉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 센터 의료지원 재능 기부

▶ 1월 6일 \_ 밀양미르치과-밀양교보생명 치과의료서비스 MOU 체결



창원  
미르

▶ 2월 6일 \_ 밀양미르치과-밀양구치소 치과의료서비스 MOU 체결



▶ 1월 16일 \_ 언론인의 구강건강 지원과 구강건강 캠페인,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광주전남 기자회견'의 협약' 체결



상무  
미르

▶ 1월 28일 \_ 아름다운가게 2015년 1호 행사



전주  
미르

▶ 2월 6일 ~ 3월 20일 \_ MBC 라디오 치과 상담

- \* 2월 6일 \_ Dr.김중환(임플란트)
- \* 2월 13일 \_ Dr.박채희(턱교정 수술과 교정치료)
- \* 2월 27일 \_ Dr.김중환(치수염)
- \* 3월 6일 \_ Dr.허선(치아 홈 메우기)
- \* 3월 13일 \_ Dr.박채희(치아교정)
- \* 3월 20일 \_ Dr.허선(이갈이)

밀양  
미르

문화 행사

3월 4일 ~ 4월 30일 \_ 갤러리미르 특별 초대전 김춘자 '생명의 서시'



진주 미르

3월 14일 \_ 미르아트홀 행사 (오르비 / 지르코니아 컬러링 세미나)



· EVENT ·

**미르치과의 새싹티우기**  
작은자연을 미르와 만들어 보세요.

**새싹 이벤트**

1. 분기별로 발행되는 미르진에 응모해주세요 (여름호, 가을호 2회 선정됩니다.)  
[응모방법] 예쁘게 키운 새싹을 사진(과정)과 사연을 mirnw@mirdental.co.kr 보내주세요.
2.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미르치과새싹이벤트 해시태그를 해주세요~!!

참여하신분중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  
한다면

남  
노  
그

- 이해인의 '봄의 연가' 중에서  
미르는 당신의 봄입니다.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햇빛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으며,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스스로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중에서

## **MIR, 행복한 미소를 향한 정직한 약속** **the global standard**

거제미르치과병원 거제아주미르치과병원 경산미르치과병원 구미미르치과의원 구미뉴욕미르치과의원 광주상무미르치과병원 광주첨단미르치과병원 대구미르치과병원 목포미르치과병원 밀양미르치과의원  
부천미르치과의원 서대구미르치과의원 서울미르치과의원 수원미르치과의원 순천미르치과병원 안산미르치과병원 전주미르치과병원 진주미르치과병원 창원미르치과의원 통영미르치과의원 포항미르치과병원